



맞춤형(Pin-Point) 정책지원이 경쟁력 살린다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국정최고지표가 요즈음의 화제거리다. 국정지표로 수치가 제시된 것이 다소 멋쩍은 듯한 느낌이 있었다는 후문도 있지만, 간명하고 정치(精緻)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읽을 수 있어 새롭다.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그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로서도 한층 정제된 지원·육성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해보며, 이번 호에는 벤처산업의 태동과 성장에 관련된 일련의 분석을 통해 정부의 벤처산업 지원정책에 관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찾아 본다.

일률적 정책지원 방식 벗어나야

벤처산업의 성공과 정책적 수단과의 함수관계는 어떻게 될까?

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통상적 성공률은 20%수준이나 정부와 연구소, 기타 유관기관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결합되면 50%이상의 성공률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원과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벤처산업의 특성상, 정부와 기타 주변기관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기술혁신과 기술상업화의 과제가 세계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이래 많은 국가들은 기술 벤처를 육성하기 위해 과학단지(Science Park)나 창업보육센터(Technology Incubator)의 설립과 같은 정책들을 동원하였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기초기술단계에서의 혁신(Innovation)을 통해, 시제품을 만들고 이를 검증·발전시켜 상업화시키는 일련의 순차적 방식에 이론적 근거(선형모형이론)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들은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수월한 반면, 다양한 유형의 벤처기업에 대한 현실적 설득력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보다 냉

철한 분석과 실증적 자료에 바탕한 적실성 있는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현실 분석 선행되어야

국내의 많은 벤처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대부분 창업하였는데 벤처유형과 기업가들의 특성, 벤처의 성공요소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35%), 생명·의료(9.3%), 컴퓨터(16.7%), 그리고 반도체(10.8%) 분야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창업이전 근무 직장 및 경험과 관련이 깊은 스피ن 오프(Spin-off)방식을 통해 대부분 창업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상당수의 벤처기업들이 기초연구보다는(12.6%) 기술응용단계(55%), 시험개발과 생산단계의 혁신(32.4%)으로부터도 활발히 창업했다는 점이다.

창립년도	산업분야	창업전 직업관의 연관성	벤처유형	핵심혁신요소
1996(4.3)	반도체(10.8)	동종업종(33.3)	제품혁신(41.5)	기초기술(12.6)
1997(16.2)	컴퓨터(16.7)	매우밀접(37.8)	기술상업화(43.2)	응용기술(55)
1998(36.8)	소프트웨어/통신(35)	관련(21.6)	기타(15.3)	시험개발(22.5)
1999(35.9)	생명/의료(19.2)	무관(7.2)		제품(9.9)
2000(6.8)	기타(28.3)			

성별로는 벤처기업가 가운데 남성이(93.4%)로 압도적으로 많고, 연령별로는 30대가(52.2%)를 이루고 있어, 사회적 환경이 여성과 기성세대의 창업을 크게 억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는 학사이상 고학력층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연구개발분야(54.8%)와 연구기관출신(42.6%)들이 주로 창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 별	연 령	학 력	전 공	창업적 직업	창업전 직장
남성(93.4)	25세이하 (0.9)	고졸(1.7)	인문사회/ 과학(9.4)	연구개발 (54.8)	교육기관 (13.9)
여성(6.6)	25~30세 (22.6)	학사(51.3)	자연/엔지니어(82.1)	기술(15.7)	민간기업 (32.2)
	31~35세 (26.1)	석사(30.8)	기타(8.5)	학생(10.4)	공기업(4.4)
	36~40세 (26.1)	박사(16.2)		사무직(4.4)	연구기관 (42.6)
	41~45세 (20.1)			영업(5.2)	기타(7.0)
	45세 이상 (4.3)				

지원정책의 포커스에 대한 검토 필요해

다음으로 벤처기업의 성공요소(저임대료공간, 경영서비스, 공용서비스, 행정 및 재정 서비스, 창업보육센터의 리더십, 대학 및 연구소의 지원, 벤처캐피탈의 재정 지원, 시장 여건, 창업지향적 문화, 국내기업과의 네트워크, 국제적 정보교환 네트워크, 강한 기업가정신, 사업 계획, 경영 능력, 기업 입지, 마케팅 능력, 기술 전문가 등에 대한 이들의 태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몇가지 정책적 유의미성을 발견할 수 있다.

‘창업 단계’에서 벤처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 이들은 강력한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이 수반된 사업계획, 기술전문가, 경영능력, 입지, 저임대료 공간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장단계’에서는 강력한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이 수반된 사업계획, 기술전문가, 저임대료 공간, 경영능력 순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가들은 기업의 창업에 미친 요인보다 성장에 기여한 요인들을 성공요인으로 더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저임대료 공간의 제공이나, 정보공유에 필요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제외하면 주목할 만한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적 역할보다는 기업자체의 요인들에 보다 높은 성공요인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유형별로 살펴보면 응용기술이나 시험개발 제품 단계의 혁신에서 비롯된 벤처기업들은 기초기술의 혁신단계에서 비롯된 벤처기업보다 과학단지나 창업보육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성공에 보다 많은 영향과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다.

성공요소별 평가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초기술의 혁신단계에서 비롯된 벤처기업은 기술 그 자체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반면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들은 마케팅이나 제품등 경영지향적(Management-Oriented) 요소에 더욱 중요성을 두고 있다.

즉, 창업경쟁력을 선도첨단기술에 의존하는 벤처기업은 기술자체를 더 중시하지만 이미 증명된 기술의 실제적 상업화에 매달리는 기업들로서는 창업보육센터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창업보육센터가 제 기능을 함으로써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상업화하려는 경우 창업보육센터가 사전에 창업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가도 창업보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인지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얻고자 한다.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의 창업보육센터활용이 저임대료 공간을 제공해 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과는 뚜렷이 대조되는 현국인 것이다.

맞춤형(Pin-Point) 지원정책 개발 시급해

보다 폭넓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우리는 몇가지 정책적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는 벤처기업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상황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은 기초기술의 혁신 뿐만 아니라 응용기술, 시험개발, 제품, 마케팅의 혁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혁신을 통해 기업을 창업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입안시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정책의 정확성이다. 창업단계와 성장단계에서의 성공 요소가 다를 수 있고 혁신의 유형별로 기술 지원이 중요한지, 아니면 경영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과 그에 맞는 정책적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기업에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인드보다는 개별기업에 꼭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입안자들은 벤처정책입안시 벤처기업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 정책개발에 진력할 필요가 있다. 벤처의 성공요소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에서 보여지듯이 이들이 보다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자거나 기술 지원보다 성공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에 대한 훈련과정과 같은 무형적인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홀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했던가? 벤처기업과 정책입안자, 그리고 시장의 혁신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 위 글은 최근 SSC(사회과학인용색인)에 등재된 충남대 강병수 교수의 ‘벤처기업의 기술상업화 특성에 관한 연구’란 논문을 참조, 정리했다.